

## 임종이 임박한 환자 관리

춘천병원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 배 옥 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됨에도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돌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즉,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위를 제공하고 그의 가족들이 환자의 안위도모에 참여하고 사별에 대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심신이 지쳐 힘든 환자와 가족에게 안정되고 조용하며 가족과 함께 쉬수 있고 보낼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환자는 어느 순간만이 아닌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간호를 받을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기 암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삶을 포기할 즈음에 가장 가까워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여줄수 있는 호스피스가 있기에 환자나 가족만이 갖는 고통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서 힘들었던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잘 보낼수 있었는지를 다음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사 례 1

66세의 남자 폐암환자가 내과병동에 입원해 계시다 통증과 욕창으로 힘들어함에 저희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되어 상담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그의 부인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면서부

터 눈물을 글썽이고 이틀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프다, 힘들다는 표현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통증이 조절되고 욕창간호로 인해 상처가 많이 나아지고 입원한지 5일이 지날즈음에 환자의 부인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이곳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을때가 다 되었나 보구나. 이제 얼마 보지도 못하겠구나 생각하니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좋아지고 아파하지도 않고 이제 살거 같아요" 하십니다. 환자는 하지마비로 인해 움직임이 힘들고 침상에서만 생활해야 했지만 그동안 환자가 호소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보호자도 차츰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호스피스 병동하면 많은 분들이 임종의 장소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들은 또 한번의 사형선고를 받는느낌이라고 합니다.

처음 왔을때의 낯설음과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고 내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됨을 봅니다. 환자에게 있어 부인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에 다른 가족이 오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부인만 오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신답니다. 종일 환자의 시중만 들던 부인은 혈압도 오르고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아 썩그린 얼굴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자주 혈압을 체크해주고 당뇨도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봉사자의 도움으로 이들에 한번 정도는 집에도 다녀오고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도록 해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동안 환

자를 더 생각하게 되고 다녀와서는 더 살뜰하게 환자 간호를 하십니다.

환자의 안정과 평안이 보호자의 심리와 바로 연결됨을 알수 있던 사례였고 환자를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사별후 가족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손자들 돌보면서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 사 례 2

오랜 병원 생활로 지친 가족들.

간혹 몇분의 보호자들은 너무 힘들고 지쳐 그저 환자 옆에서 자리만 지키면 되겠지 생각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환자의 체위변경을 위해 간호사 혼자서 끙끙 거리고 환자를 움직여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하면 대답만 “네”합니다. 확인해 보면 전혀 해준게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도 별로 없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시간을 자주 갖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간호는 간호사 혼자만 하지 않고 항시 도움을 요청해 한번이라도 더 환자결으로 다가서게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목욕과 발마사지, 체위변경 등 간호사가 저렇게 까지 하는데.....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얼굴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가끔 손도 잡아주면서 이야기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이렇게 환자와 냉담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냉대가 큰 이유라고 심경을 토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가가기 싫었다고.....하지만 한분밖에 없는 어머니이기에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하면서 두분의 화해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사 례 3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암환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암사모(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온라인상으로 만났던 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 암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해도 “끝내는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해주세요”한답니다.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얼마나 편안할수 있을까요?

통증으로 인해 힘들고 토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힘든모습을 봐야만 하는 젊은 자녀들입니다.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못하기에.

온라인 상으로 만난 아픔을 같이한 사람들과 맘이 통합니다. 나이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암환자의 가족이란 사실만으로 어느 가까운 친인척보다 정이 가고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서로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권해 보고 잘잘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환자의 편안함을 찾습니다.

언젠가 대학생인 환자의 가족이 글을 올렸습니다. 위암으로 너무 힘들어 하신 엄마로 인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힘든 심경을 올려놓았기에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은..제게..호스피스라는곳을..알려주면서..자꾸..그곳을..권해보더군요..

하지만..그건 말이 안됩니다..

제생각이지만..호스피스라는곳은..자기네..돈벌려고..

하는..나쁜..사람들같습니다.

환자들이...호스피스라는곳을..들어가면..자기가..죽는  
다는걸..알고..인정하게되며..

얼마남지않은..인생마저 포기할수도 있죠.

그래서..전..저희 어머니를..절대..그딴곳에..데려가지  
않을겁니다.

오히려..가족결에서...편안한..집에서..있는게..낯선사  
람들과..있는것보다..훨씬..더편하며..마음도..편할꺼라 생  
각됩니다.

갑자기..

화가나면서..주체할수가 없군요.

만약..제옆에 있다면..위에..간호사란분.요.

때려주고 싶을정도로..화가납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선입견이 아직도 많은 암환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사  
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  
이해해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시키고 결정을  
했다며 보내온 글입니다.

“보름동안..집안에만 틀어박혀..암에대한 통증으로,  
고생만 하다가..

응급실을 통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  
다..

입원하는 순간에도..

아빠와..나..동생들은..무척이나 울었는데..

살아서 들어가도 나올때..죽어서 나오는곳이라..

소문난 호스피스병동..”

이후 환자는 비록 힘든 병원생활을 하셨지만 심적  
으로는 많은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통증도  
조절되어 그 힘든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되었기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환자의 가족과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으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으며  
힘들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어디  
서나 쉽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곳이 많이 생  
겨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  
을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